

■ 수업에서 하브루타는 주로 네 단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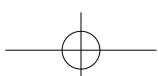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는 주로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동기 하브루타, 짹 하브루타, 모둠 하브루타, 쉬우르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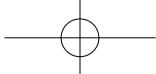
첫째, 동기 하브루타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끌어내는 하브루타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학습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발문하는 하브루타로 주로 수업을 시작할 때 도입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질문하는 시간이다.

둘째, 짹 하브루타는 아이들 둘이서 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하브루타이다.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다. 질문은 주로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열린 질문 형태로 명확하게 주어진다. 교사는 짹 하브루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준다.

셋째, 모둠 하브루타는 아이들 네 명이 짹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하브루타이다. 짹 하브루타보다 수준이 있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 대해 모둠으로 하브루타 하는 과정이다. 질문은 짹 하브루타보다는 수준이 높은 열린 질문으로 바로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다. 교사는 모둠 하브루타에 어려워하는 유아들을 도와준다.

넷째, 쉬우르는 교사가 아이들 전체에게 질문을 던져 정리 요약하는 하브루타이다. 유대인 랍비나 교사가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이다. 교사가 그동안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 주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주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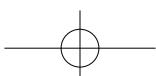
전체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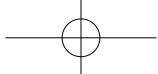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 하브루타는 공감하며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가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좋은 경청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청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사랑과 관심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떤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할 때 부모나 교사는 사랑과 관심의 태도로 경청하면서 아이의 표현을 도와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같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가 억눌렸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문제와 해결책을 찾도록 돋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가 아이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며 반응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반영적 경청이라고 한다. 반영적 경청하기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선입견 없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것에 반응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반영적 경청은 아이와의 대화뿐 아니라





그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가장 필요한 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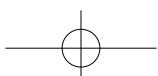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감정의 해소, 감정 정화에 아주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고 아이의 느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아이는 부모나 교사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확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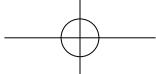
■ 우선 격려하고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라

어떤 잘못을 해서 상사에게 불려 갔다고 하자. 그때 상사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다시 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상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속으로 실컷 상사 욕을 하거나, 동료와 수다를 떨면서 상사를 비난하거나, 두고 보자며 언젠가의 복수를 생각할 것이다. 거기에 애초에 잘못한 것에 대한 나의 반성은 없다.

아이도 인간이므로 우리와 똑같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화를 내면, 아이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 복수를 결심하기도 한다. 아이가 그것을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다. 또 왜 잘못했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감정적인 화를 폭발시키고 매를 든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자. 구체적인 예로 아이가 장난감을 이것저것 꺼내어 놀면서 방을 어질러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이가 노는 방에 들어갔다가 어질러진 방을 발견했을 때, 보통 다음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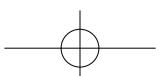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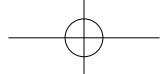
- ❶ “너 방을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 너 아주 못됐구나. 당장 안 치워!”
- ❷ “방이 아주 보기 좋다. 돼지우리도 이것보다 낫겠네. 네가 어지르지 않고 노는 것이 기적 이지.”
- ❸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구나? 놀 때는 이렇게 놀아야지. 잘했어. 가서 빵 먹어라. 치우는 건 내가 할게.”
- ❹ “재미있게 놀았니? 그런데 너무 어질려져 있구나.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엄마도 많이 힘 들어. 꼭 놀고 싶은 것을 정해서 그것만 꺼내서 놀면 좋겠다. 엄마랑 같이 치우자. 너도 잘 정리 할 수 있을 거야.”

어른들은 너무도 쉽게 1번이나 2번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자신이 상사에게 이렇게 당하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자신의 이런 반응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3번과 같은 반응이 가장 많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3번 역시 아이가 배우지 못하는 방법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화를 참아야 하고 모든 장난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또한 아이는 아이대로 버릇없이 자라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배우지 못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1, 2번과 같은 반응은 아이를 상습범으로 만들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제시 없이 화를 냄으로써 아이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맨날 나한테 화만 내. 내가 동네북인가? 그럼 놀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장난감은 왜 사 줬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는 입 밖으로 내지 않다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 나이가 되면 입 밖으로 꺼내게 된다. 그러면 바야흐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1번과 2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른의 감정이나 요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쪽으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누구든 자신의 감정을 건드





리는 발언을 들으면 반항심이 생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자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이의 감정이나 자존심, 인격을 건드리는 표현은 상처로 연결되고 분노와 복수심을 자극한다.

4번처럼 아이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 다음 주어를 ‘나’로 해서 나 전달법으로 말한다. 아이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다음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은 아이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치우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행동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하려면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육할 수 있다. 나의 감정이나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나 표현법, 나 전달법이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